



원자력 NEWS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본격 개발 시동 과학기술부, SFR·SCWR 등 논의

과학기술부는 3월 22일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IV) 기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듐냉각고속로(SFR) 시스템 연구 개발 참여 범위 및 예산을 심의하고, 초임계압냉각로(SCWR) 시스템 연구 개발의 본격 참여 여부 등을 논의했다.

과학기술부는 2006년 11월 제3차 GEN-IV 기획위원회에서 SFR 시스템의 핵연료 프로젝트 참여 범위(4개 Tasks, 13.3억)를 심의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설계 및 안전 프로젝트, 기기 설계 및 2차 계통 프로젝트의 참여 범위와 예산을 심의했다.

또한 이번 기획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제2차 GEN-IV 워크숍에서 두산중공업(주) 및 한국전력기술(주) 등 산업체가 요청한 바 있는 초임계압냉각로(SCWR)의 공동 연구 개발에 본격 참여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이번 기획위원회를 통해 한국이 참여중인 SFR 시스템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범위 및 예산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게 되면, SFR 시스템의 본격 개발을 위한 바탕을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월성 4호기 원전 이용률 세계 10위 국내 4개 원전 모두 20위권 안에 들어

월성원자력발전소 4호기 등 국내 4개 원전이 2006년도 전 세계 원전 이용률 부분 TOP 20에 이름을 올렸다. 3월 15일 <Nucleonics Week>가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전은 영광 4호기(99.91%) 13위, 월성 2호기(99.70%) 15위, 영광 2호기(99.65%) 17위를 각각 차지했다.

1위는 미국 플로리다 P&L사의 St. Lucie 1호기로 이용률 102.78을 기록했다.

원전 이용률 1위부터 10위까지는 5위를 차지한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가리와 2호기(101.08%)와 10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월성 4호기(100.39%)를 제외하고 모두 미국 원전이 차지했다. 미국은 이용률 부분 세계 TOP 50에서도 절반 이상을 점유했다.

지난해 세계 원자력 발전량은 총28억MWh로 이는 1960년대 후반 원자력 발전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캐나다와 러시아의 원자력 발전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4개 원자력본부 중 월성원자력 본부가 이용률 9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광원자력본부(93.10%), 울진원자력본부(92.32%), 고리원자력본부(89.45%)를 기록했다.

베트남 대학 및 원자력 기관과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하노이기술대학교(HUT), 하노이과학대학교(HUS), 베트남방사선원자력안전통제기구(VARANSAC) 등 베트남의 대학 및 원자력 기관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3월 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3건의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

하노이기술대학교, 하노이과학대학교와 양해각서는 베트남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 원자력 이용 개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원자



력 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위해 체결하게 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원자력 전문 인력 자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과학 교육 분야에 관한 공동 연구 등이다.

두 대학과의 양해각서 체결로 양 기관 간 우수 인력 교류 활성화와 상호 교육 훈련과 공동 연구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베트남 원자력 정책 결정자들과 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연구용 원자로 및 방사선 관련 기술의 베트남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 규제 기관인 베트남방사선원자력안전통제기구와의 협약은 주베트남 한국 대사와 베트남 과학기술부 차관이 참관한 가운데 베트남 과학기술부 청사에서 체결되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연구로 인허가 경험, 원자로 안전 연구개발, 연구로 운영 안전 관리, 연구로 안전성 평가, 방사선 방호 등 원자력 안전의 전반적인 분야이다.

베트남은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연구로와 방사선 시설의 실질적인 안전 강화를 도모하고 원자력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2015년 연구용 원자로 도입, 2020년 1,000MW급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한 상태로, 이를 이뤄낼 원자력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의 원자력 기술자립 경험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며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 발족

해외 시장 조사, 법률 자문 통해 수출 기업 지원



정부가 원자력 기술 수출을 위한 강력한 지원 드라이브를 걸었다.

과학기술부는 3월 1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 창립 행사를 열고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수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한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 웹사이트인 'Atom-Xport(www.AtomXport.com)'를 개통하고 자문단과 수출 기업 간 온라인 커뮤니티로 활용키로 했다.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은 과기부 김영식 원자력국장과 (사)한국원자력기술기업협회 김정목 회장이 공동 단장을 맡게 되며, ▲전략적수출품목 ▲동위원소이용 ▲비파괴검사 ▲원자력밸리 ▲기반기술이용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또 수출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해외 시장 조사, 마케팅, 수출 통제, 법률 등을 지원키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수출지원자문단도 됐다.

앞으로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은 유망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품목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수출정보를 제공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접수해 해결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해외 마케팅, 법률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원자력 수출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민·관 합동, 원자력 기술 수출 3억 달성 도전"

과기부, 원자력기술수출전략 좌담회 개최

정부와 민간 부문이 손잡고 올해 총 3억달러의 원자력기술 수출에 나선다.

과학기술부와 원자력기술 업체들은 3월 15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민·관 합동 '원자력기술 수출지원단' 출범식에 이어 수출전략 좌담회를 열고 올해 수출 목표를 3억달러로 확정했다.

이는 작년 대비 금액 기준 50%가 늘어난 것으로 대상 품목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의료 기기, 비파괴 검사 서비스 등 비발전 분야이다.

과기부 김영식 원자력국장은 좌담회에서 "원자력 기술은 평화적 이용과 살상무기 악용 등 양면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정부 차원의 규제를 받고 있어 기업들의 수출에 애로가 많았다"면서 "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열어주고 세계 시장 동향과 각국의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단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대표들은 좌담회에서 각국의 규제·면허 등의 상이점을 가장 큰 수출의 애로 사항으로 꼽고 각국의 규제 정보 제공, 자격증 상호 인정, 해외 홍보 확대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원자력기술기업협회 김정목 회장(한빛레이저 대표이사)은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은 발전 분야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비발전 분야의 육성과 해외 시장 개척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기업들의 수출 애로 사항의 공통분모는 각국의 상이한 법률 문제"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애로 사항을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사성동위원소협회 정경일 이사(삼영유니텍 대표이사)는 "지난해 최첨단 의료 진단 장비인 PET(양전자 단층촬영) 국내 이용자는 120만명이었으나 올해는 18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향후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이사는 "각국의 정부가 원자력 분야의 규제를 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정부간 회의 등을 통

해 수출활로를 열어주고 학회 및 전시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6년째 중동·아프리카 등에서 비파괴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올네이션의 김종호 대표이사는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기업을 지원하고 특히 나라마다 다른 법규, 자격증 등에 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기업에 제공하면 시행 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학계 대표로 참석한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는 "원자력 기술 수출에는 인력과 유지·보수, AS 등이 따라가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크고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도 원자력 기술 수출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비발전 분야는 아직 시장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출 시장 개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대성 국제변호사는 "원자력 기술은 평화적 이용과 살상 무기로의 악용 가능성 등 그 양면성 때문에 나라별로 규제와 관리가 엄격하다"면서 "앞으로 수출 지원단의 법률 자문위원으로서 법률 정보 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영식 국장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수준이 국제 무대에서 세계 6위권으로 평가받고 있고 국내 원자력 기술 기업들의 기술력도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을 볼 때 올해 3억달러 수출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자력연료 연간 재변환 용량 550만톤으로 증설"

한전원자력연료(주), 세라믹설비 증설사업 착공

연간 원자력연료 재변환 용량을 250톤 늘리는 세라믹 설비 증설사업이 3월8일 착공에 들어갔다. 이 설비가 준공되면 제조 원가 절감은 물론 안정적인 원자력연료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원자력연료(주)는 3월 8일 본사 제2공장에서 세라믹 설비 증설을 위한 기공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윤맹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시공사인(주)대우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라믹 설비 증설 사업은 연간 원자력연료 재변환 용량을 250톤 늘리는 것으로, 특히 외국의 의존 없이 한전원자력연료(주)와 대우건설 등 국내 협력업체가 사업을 추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세라믹 설비 증설 사업은 수입한 육불화우라늄(UF₆)을 이산화우라늄(UO₂)으로 재변환하는 시설과 이를 세라믹 형태의 소결체로 만드는 공정을 늘리는 것으로 총344억원이 투입된다.

완공은 2008년 말 이뤄지며 상업 생산은 2009년부터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 시설이 준공돼 상업 생산이 이뤄질 경우 제조 원가 절감은 물론 신고리 1, 2, 3, 4호기 및 신월성 1, 2호기 원전에 더욱 안정적으로 원자력연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착공 첨단화된 비상 대응 설비 구축

월성에 이어 영광 지역에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방재센터)가 건설된다.

과학기술부는 3월 21일 영광 지역 방사능 재난 발생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수습과 대응 활동을 지휘하는 영광 현장방재센터를 10월 완공을 목표로 3월부터 건설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현장방재센터는 26억원을 투입해 영광 원자력발전소에서 약 14km 떨어진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1만 4034㎡의 부지에 연면적 1235㎡의 2층 건물로 건설

된다.

영광 현장방재센터 부지에는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비상대책실과 영광군 기상관측소도 함께 입주하여 방사능 방재 유관 기관 간 원활한 정보 교류와 긴밀한 협조 체계가 구축돼 방사능 재난 대응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과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장방재센터는 방사능 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고 수습과 주민 보호 조치를 위해 방사선 방호·방재 장비 및 제염 장비는 물론 '국가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AtomCARE)'과 연계한 원전 운전 상황 정보 수집 설비, 원격 화상 회의설비, 비상 통신 설비, 정보화 설비 등 첨단화된 비상 대응 설비를 갖추게 된다.

원자력 안전점검 발전전략 연차회의 개최 안전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발전 전략 수립

‘원자력 안전점검 발전전략 연차회의’가 3월 6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8개 원자력 관계 기관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지난 2003년 원자력안전의 날 행사를 처음 개최한 이후 4년간의 안전 점검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안전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문병룡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심의관은 그 동안 원자력 안전성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전문가들을 치하하고 우리 국민이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원자력 안전 수준 확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원자력 안전 정도를 원자력 종사자가 느낄 수 있도록 ‘언론이 본 원자력 안전’에 대한 초청 강연이 있었으며, 참석 기관 별로 ‘인적 오류 예방 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원자력 안전점검의 날은 원자력 시설 종사자들의 자율적인 안전 점검 활동과 안전 의식을 재인식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매월 각 원자력 기

관별로 자체 행사 및 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수원, EDF와 정기협력회의
상호 경험과 우수 사례 등에 대한 의견 교환



한국수력원자력(주)는 5일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제2차 정기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04년 2월에 체결된 한수원-EDF 간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른 연례 정기 회의로,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는 원전 안전 운영과 신뢰성 증진을 위해 주기적 안전성 평가, 기술 정보 관리, 상태 기준 정비 및 각종 설비 개선 등 13개 관심 분야에 대한 상호 경험과 우수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20기의 원전 운영(설비 용량, 17,716 MW)을 통해 국내 전력의 39%를 공급하여 고유가 시대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였고 원전 평균 이용률 92.3%를 기록함으로써 2000년 이후 연속 7년간 이용률 90%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선진 전력 회사와의 기술 협력 확대를 통해 국내 원전 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자로 계통 열수력 실증 실험 성과 워크숍
KAERI, 실험 결과 적용 사례 및 활용 경험 소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3월 20일 연구소내 국제원자력 교육훈련센터(INTEC)에서 '원자로 계통 열수력 실증

실험(THETA)의 성과 및 활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원자력 안전의 핵심 기술인 열수력 실증 실험 관련 연구 결과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게 됐다.

열수력 분야는 가동중인 원자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원자로 이상시 안전하게 노심을 냉각시키는 기술로,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번 워크숍은 원자력연구소의 최근 연구 성과 소개와 원자력 유관 기관의 연구 결과 소개, 열수력 실증 실험 결과의 활용 현황 및 계획, 종합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신형경수로 APR1400과 관련한 열수력 실증 실험(THETA)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워크숍에 참가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실험 결과의 적용 사례 및 활용 경험을 소개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에 김병로씨 선임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3월 12일 재단 이사회에서 김병로 전 경남 진해시장을 임기 3년의 제7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김 이사장은 경남 진해 태생으로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1967년 월남전에 참전한 해병 장교 출신이다. 1978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시작으로 1991년 제4대 경남도의회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했다. 또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민선 진해시장으로 취임한 후 3선 연임을 했다. 그는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민선 1기부터 3기까지 2번이나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방사성동위원소협회 제8대회장에 김철중 씨 취임

(사)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제8대 회장에 김철중 부회장이 취임했다.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는 2월 26일 제76차 이사회를 열어 김철중 부회장을 제8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3월 2일 고창순 협회명예회장(가천의과대학교 명

예총장)과 임용규 협회명예회장(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김철중 회장은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이사,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부회장, 한국방사선산업학회 부회장,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원전 부품 수출 설명회 개최
한수원, 중소기업 수출 지원 목적

한국수력원자력(주)는 3월 22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원전 기자재를 중국 등 외국에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전 부품 수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수원은 현재 중국이 건설중인 링아오 원전에 기술자문단을 파견한 상황인데, 이들 자문 인력을 중소기업의 현지 입찰과 계약 통로로 활용해 도움 계획이다.

지난해 한수원의 수출 촉진 사업 지원을 받은 삼신은 원자로용 밸브 1500만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한 바 있다.

한수원은 오는 9월 국제원자력발전 전시회를 통해 제품을 알리고 10월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직접 수주에도 나설 계획이다.

“원전인근 대학 교수 및 학생 73% 원자력 꼭 필요”
월성 원전 설문 조사 결과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대학 교수 및 대학생의 73%는 국내 전력 생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답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수원(주) 월성원자력본부는 최근 지난해 ‘대학생 초청 견학’을 통해 원전을 방문한 인근 9개 대학의 교수 및 학생 41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92.34%가 원자력 발전이 국

내 총발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답했다. 또 93.77%가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국내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9.09%가 매우 안전하다, 41.15%가 다른 산업 시설에 비해 안전하다고 답했다.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운전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 42.34%, 원전 운영 정보 공개 28.71%, 발전 설비의 보수 15.07%, 발전소 운영 관련 각종 규제 강화 13.64% 순이었다.

원전 홍보에서 가장 중심을 뒀야 할 항목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7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성(17.46%), 청정성(4.07%), 지원 사업(3.35%)였다.

설문 조사에 참석한 응답자들의 90.19%는 원전 견학 후 원자력에 대한 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했다.

대테러 진압 훈련 실시
한수원(주) 월성원전



한수원(주) 월성원자력본부는 2월 27일 본관 건물에서 경북지방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 대테러 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권총으로 무장한 정체 불명의 테러범들이 월성원자력 본관 건물을 침입해 근무자를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을 가장해 경찰 특공대가 신속하게

투입, 테러범을 진압하는 상황을 설정해 전개됐다. 특히 경찰 헬기와 경찰특공대가 공포탄을 쏘는 등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대테러 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대테러 합동 모의 훈련에는 경북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경찰특공대, 부산항공대, 경주경찰서, 월성원자력 청경대 등 약 60여명이 투입됐다.

한수원 지역 사회 공헌 워크숍 개최

체계적 · 합리적 지원 방안 모색

한국수력원자력(주)는 3월 15, 16일 양일간 울진원자력본부 교육훈련센터에서 '제3회 한수원 지역 사회 공헌 워크숍' 행사를 개최했다.

첫날에는 한수원 본사 경영기획처에서 '2007년도 지역 공동체 경영 추진 방향'이란 주제 발표와 박현택 울진원자력 본부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사업자 지원 사업 추진 경험', '지역 사회 봉사 활동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과 극복 사례'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또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구혜영 교수의 '한수원의 역할과 지역 사회 공헌 활동 추진 방향'이란 특강이 있었다.

16일에는 행사 참석자 60여명을 2개조로 나눠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실효성 있는 사업자 지원 사업 추진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가 펼쳐졌으며, 각 사업소 실무자들의 다양하고 신선한 아이디어 제시로 한층 더 발전된 지역 사회 공헌 활동과 사업자 지원 사업의 합리적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초대원장에 김종순씨 임명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초대원장에 김종순 현 한국수력원자력(주) 방사선보건연구원 원장을 임명했다.

김종순 초대원장은 방사선보건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뛰어난 기관 운영 능력을 입증하였고, 핵의학 및 방사선 인체 영향 등 방사선의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최근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가 선정하는 '21세기 주목할 만한 2000명의 지식인'에 선정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인사동정

2. 22 ~ 3. 19

○ 과학기술부

- 3월 15일

◇과장급 전보

▲핵융합지원과장 엄재식 ▲우주개발정책과장이진규 ▲조사평가과장 정병선 ▲핵상황대응팀장 장보현 ▲연구개발인력교육팀장 김호성 ▲전략기술통제팀장 유남규

◇4급 전보

▲재정기획관실 박경수 ▲정책홍보담당관실 정택렬 ▲우주기술훈발과 김성규 ▲월성원전주재관실 전창효 ▲연구개발예산담당관실 임

요업

◇4급 파견

▲국무조정실 황관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현수

○ 한국전력기술(주)

- 3월 2일

▲품질보증처장 고갑석 ▲재무관리처장 신현철 ▲계약실장 이진부 ▲원자력사업관리실장 안종환 ▲환경기술실장 김부한 ▲원자로설계개발처장 최택상 ▲원자로안전처장 백주현